

이공윤의 의약동참기록 연구

¹김동윤, ²차웅석

¹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Study of Clinical Discussion Records Lee Gong-yoon Involved

¹Dong-Ryul Kim, ²Wung-Seok Cha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²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clinical discussion records where Lee Gong-yoon, participated in Royal treatment at Joseon Dynasty, was involved. Lee Gong-yoon who scouted from the outside had participated in the medical center of the Royal Family for several years as a royal doctor. But he preferred aggressive prescriptions and behaved indiscreet. Eventually, he was exiled when Kyung-Jong who was the 20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died.

He was harshly criticized until the year crown prince ascended the throne following Kyung-Jong. But some officials started to defend him since March of the next year. They recognized Lee Gong-yoon's aggressive prescriptions and indiscreet behavior. But mentioned that some very aggressive prescriptions didn't come from his own idea. After they proved their insistence true, his place of exile was changed from island to outland.

Different from other doctors who focused on patients' 元气 (yuánqì), Lee Gong-yoon focused on removing patients' symptoms when he decided to cure a disease. And also he had considerable insight of 『醫學入門 (yixuérùmén)』. Despite of his high degree of medical knowledge, unconventional character and behavior made the end of his life unfortunate.

Key words : clinical discussions, Lee Gong-yoon, Royal medicine of Joseon Dynasty, Seongjungwon Ilki

I. 서론

이공윤은 조선 숙·경종 시기에 왕실진료에 참여한 醫人이다. 그의 조부는 이정규로 정3품 承旨까지 오른 인물이었으며 아버지 이민정 역시 정4품 掌書까지 오른 인물이다.¹⁾ 숙종35년(1709) 선조의 증손이자 경창군의 아들인 유천군 이정과 함께 의약에 동참할 기회를 얻은 그는 이를 계기로 종9품 副司勇직을 얻게 되며²⁾,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왕실 진료에 참여한다. 숙종35년, 39년, 41년에 걸쳐 약 1년간

숙종 진료에 참여했던 그는 숙종 승하 후 경종2년(1722)에 다시 등장, 종9품 長陵參奉에 임명되어³⁾ 그해 11월부터 경종이 죽게 된 경종4년 8월까지 議藥에 동참한다.⁴⁾

왕의 진료에 직접 참여한 의인으로 여러 차례 왕실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하다. 도제조의 추천으로 왕실진료에 참여하게 된 인물이긴 하나 桃仁承氣湯이나 臙山南極丹같은 독성이 강한 약재를 왕에게 지어 올렸으며, 경종이 죽기 직전에도 다른 의원들과 잦은 의견 대립을 보여 결국 영조 즉위 이후 유배를 당했다.⁵⁾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한 평은 좋지 못한 편이며, 영조의 경종독살설을 주장하는 학자 중 일부만이 그를 의학적 학식이 높은 인물로 설명하는데⁶⁾ 이는 영조의

접수 ▶ 2016년 11월 16일 수정 ▶ 2016년 11월 25일 채택 ▶ 2016년 11월 24일
교신저자 ▶ 차웅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4-3190 Fax : 02-965-5969 E-mail : chawung@gmail.com

1) '士人李公胤, 卽故承旨廷圭之孫, 故掌令敏徵之子, 亦名家也.'(『승정원일기』 경종 2년 8월 28일)

2) 『승정원일기』 숙종35년 11월 10일

3) '李公胤爲長陵參奉'(『승정원일기』 경종2년 11월 18일)

4) 김동윤, 정지훈. 「경종독살설 연구」. 한국역사학회지. 2014;27(1):15-31.

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독살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공윤이 어떤 의료인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왕실 기록, 특히 의학과 관련된 기록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현재까지 이공윤의 의학사상에 대해 다룬 논문이 없는 상황에서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그의 의약동참 기록들에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는 사뭇 다른 정황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이공윤의 의약동참 관련 기록들을 분석하였다. 여러 진료 기록들, 그리고 이공윤과 관련되어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공윤의 모습과 사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이공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였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공윤의 의약동참 기록들 중 이공윤의 의학적 견해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의 학술적 성향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II. 본론

1. 이공윤의 의약동참 관련 기록 분석

이공윤의 의약동참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을 크게 둘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공윤에 대한 기록들로 주로 도인승기탕이나 구선남극단과 같이峻烈한 약제를 써서 경종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대체로 경종실록과 영조 즉위년 기록들에 많이 등장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고 또 그를 변호하는 기록들인데, 이들은 모두 영조 원년 3월 이후에 등장한다.

1) 준열한 처방을 선호한 이공윤

이공윤은 숙종35년 왕실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의약동참

을 할 方外醫人⁷⁾으로 추천받은 그는 이때부터 숙종 4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왕의 진료에 참여한다. 『승정원일기』 기록을 살펴보면 이공윤은 그 당시 여러 의관들과 함께 왕에게 사용할 처방에 대해 논의하였다.⁸⁾⁹⁾ 다만 그가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지는 남아있지 않는데, 이는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특성상 의관들끼리 별도의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사관의 말을 통해 이공윤이 어떤 의학적 견지를 내세웠는지 보여준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을 복용했는데, 유의(儒醫) 이공윤(李公胤)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이공윤은 의술이 비록 조금 정밀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망령되고 폐려하여 가까이할 사람은 못되었다. 또 감수산(甘遂散)이나 승기탕(承氣湯)은 준열(峻烈)한 약제로서 시험삼아 쓰는 것이 부당함에도 경솔하게 올리니, 식자(識者)들이 염려하였다.¹⁰⁾

위 내용에 따르면 당시 임금이 도인승기탕을 진어하였는데, 이는 이공윤이 주장한 처방이었다. 또한 이공윤은 사람됨도 좋지 않으며, 감수산이나 承氣湯과 같이 공격적인 약제를 시험 삼아 쓰는 경솔함까지 보인 인물이었다.

‘사인(士人) 이공윤(李公胤)은 성질이 광망(狂妄)하였으나 의업(醫業)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그의 의술은 대체로 준리(峻利)를 위주로 하였다. 임인년 이후로 천거(薦擧)되어 약방(藥房)에 들어가 임금의 병환을 모시었는데, 이공윤이 스스로 말하기를 ‘도인승기탕(桃仁升氣湯)을 자주 복용하여 크게 탕적(蕩滌)해 내면 임금의 병환이 금방 나올 수 있다.’고하여 그것을 시험해 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공윤은 오히려 방자하게 노기 띤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의술을 자랑하며, 다시 시평탕(柴平湯)을 의논하면서 대황(大黃)·지실(枳實) 등 추탕(推瀉)하는 재료로 군약(君藥)을 삼아 계묘년에 시작하여 올봄에 이르도록 계속하여 1백 수십 첩(帖)을 올렸다. 그러자 비록 임금의 체부

6) 이덕일, 『조선 왕 독살사건』, 서울:다산초당, 2005:199-243.

7)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왕실에 소속된 내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김동윤, 정지훈, 「경종독살설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29 참고)

8) ‘副司勇李公胤及金有鉉等諸御醫商議.’(『승정원일기』 숙종35년 11월 12일)

9) ‘臣等入診退出後, 與儒川君淵, 奉事黃處信, 副司勇李公胤·鄭昌柱, 及諸醫, 反復商議.’(『승정원일기』 숙종40년 2월 23일)

10) 『경종실록』 경종3년 6월 19일

(體膚)의 외형(外形)은 왕성하나 비위(脾胃) 등 내장이 허하였고, 음식을 싫어하는 날수가 오래 되어 마침내 한열(寒熱)의 증세가 발생하였다.¹¹⁾

여기서도 사관은 이공윤의 의학적 성향에 대해 '峻利'한 방법을 위주로 하는 인물로 평가하였다. 특히 이공윤이 임금의 병을 치료함에 있어 '도인승기탕을 여러 번 복용하여 크게 蕩滌해야 한다.'라든지, '推瀝하는 약재인 대황과 지실을 균약으로 삼아 치료적 접근은 한다.'와 같이 공격적인 성격의 치료법을 많이 사용하여 임금의 몸을 '脾胃內虛'하게 만든 인물로 평가한다. 이 외에도 이공윤의 의견에 따라 임금에게 구선남극단이라는 峻劑를 사용하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¹²⁾ 이처럼 『경종실록』의 기록에서는 모두 이공윤을 공격적인 치료법을 쓰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인승기탕, 구선남극단과 같은 처방, 대황이나 지실같은 약재들이 직접 언급하면서 그의 공격적인 치료 성향을 강조한다.

한편, 경종의 승하 직전 상황에서도 이공윤의 행동이 도드라진다. 오랜 병고와 갑작스레 생긴 설사병으로 인해 병세가 위독해진 경종에게 당시 의관들은 인삼차를 추천하였다. 그런데 이 때, 이공윤은 현재 왕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桂枝麻黃湯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의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개시한 것이었다. 이 후 왕의 증세가 더욱 위급해지자 당시 세제인 영조는 인삼과 부자를 사용하라고 명한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공윤은 자신의 처방인 계지마황탕을 이미 복용하였기 때문에 인삼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¹³⁾

이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경종실록』, 『경종수정실록』 및 『승정원일기』 기사들은 내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공윤이 이날 왕실 내의들과 전혀 다른 주장을 내세웠음을 밝히고 있다. 이공윤은 긴박한 상황에서 왕세제의 의견에도 반대를 내세우는 인물이었으며, 다른 기록들에서

도 그가 비교적 자기주장이 강했던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그간 의약동참을 하면서 首醫를 비롯하여 여러 왕실 의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보여준 그의 거침없는 의사 표현은 함께 자리한 여러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왕실 기록에서 그의 태도에 대한 평가는 그의 의학적 경향성에 대한 평가보다 더욱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나 그를 변호해주는 쪽 모두 그의 행동거지가 좋지 못하고 겸손치 못하여¹⁴⁾ 자신의 의견을 말함에 있어서도 마치 자신의 처방대로 하면 곧 나올 것 같이 이야기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한다.¹⁵⁾

결국 경종 승하 이후 왕세제가 왕위에 오르고 의관들에게 경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며, 이 때 이공윤은 폐륜을 저지른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峻攻한 처방을 사용하여 임금의 병세를 악화시킨 인물이었으며, 행동거지 역시 오만하고 어그리진 인물로 평가받았다.¹⁶⁾ 결국 죄를 묻게 된 이공윤은 極邊으로 정배하라는 명을 받게 되는데, 죄에 비해 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신하들의 의견으로 인해 결국 섬으로 정배된다.¹⁷⁾ 그리고 다음날 전라도 진도군(珍島郡)으로 유배지가 결정된다.¹⁸⁾

다음해 1월이 되면 이공윤에 대한 처벌은 그것도 가벼운 것이라며 더 큰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문들이 올라오며, 이는 3월까지 계속된다. 상소문의 내용에서도 이공윤의 의료행위에 대한 비난이 이어진다. 상소문에 따르면, 경종은 생전에 오랫동안 낫지 않는 '非一時之症'을 앓고 있었다. 이 병은 奇疾이라 불렸으며 내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¹⁹⁾ 상소문의 저자는 이렇게 만성적으로 존재한 병은 和平安한 처방으로 차차 조습하고 보양하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공윤은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인 약을 사용하여 왕을 죽음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공윤이 승기탕이나 용회환과 같은 공격적인 처방

11) 『경종실록』 경종4년 8월 2일, 『경종수정실록』 경종4년 8월 2일

12) '上進癰仙南極丹. 亦用李公胤議. 是峻劑, 而變名也'(『경종실록』 경종3년 9월 16일, 『경종수정실록』 경종3년 9월 16일)

13) 『경종실록』 경종4년 8월 24일, 『경종수정실록』 경종4년 8월 24일, 『승정원일기』 경종4년 8월 24일

14) 『경종실록』 경종3년 6월 19일, 『승정원일기』 영조즉위년 8월 30일 외 다수

15) '每命一藥, 輒曰, 進御此藥, 則即當平復稱慶云'(『승정원일기』 영조원년 3월 18일)

16) '儒醫李公胤, 每當入診, 輒事傲慢, 已極不敬, 而今番違豫, 專事峻攻之劑, 以致症情之轉劇. 及夫大漸之夕, 殿下憂惶焦迫, 招問症候, 則少無驚動之意, 緩緩漫應, 急急出去. 言動舉止, 驕蹇悖戾, 伊日入侍諸臣, 莫不駭憤. 請拿鞠殿問, 依律勘斷.'(『영조실록』 영조즉위년 8월 30일)

17) '臣伏見禁府啓目判下, 有李公胤極邊定配之命, 此雖出於聖上好生之德, 論其負犯, 終未免失之太寬也. 公胤之伊日所爲, 聖上既已親觀, 而猶且牢諱者, 已極痛駭. 至於歸臥永徽殿之說, 雖存辭發明, 終不能自掩. 噫, 天崩地圯, 是何等時, 而渠雖愚駭妄悖亦是, 臣子安敢慢忽乃爾. 其爲不忠不敬, 莫大於此, 不可以遠配而止, 請罪人李公胤, 絕島定配'(『승정원일기』 영조즉위년 9월 30일)

18) '柳綏, 以義禁<府>言啓曰, 咸鏡道慶源府極邊定配罪人李公胤, 以絕島定配事, 承傳啓下矣. 全羅道珍島郡, 改定配所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승정원일기』 영조즉위년 10월 1일)

19) 김동윤, 김남일, 차웅석. 「승정원일기 의안을 통해 살펴본 경종의 기질에 대한 이해」. 한국사학회지. 2013;26(1):41-53.

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에 관한 서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즉 이공윤이 '누구'의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공격적인 처방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가 치료하려 했던 병은 화평한 처방을 사용해야 할 '오래된 병'이었으며, 그가 처방한 약을 복용할 인물은 한 나라의 지배자였던 '왕'이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공격적인 처방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지존하신 분이며, 병의 종류 또한 화평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진 오래된 병이었는데 이공윤은 이를 모두 간과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²⁰⁾

2) 이공윤에 대한 변호

이공윤에게 더 큰 벌을 내려야한다는 탄원서는 3월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3월 12일에 이르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주장이 등장한다. 이공윤이 쓴 도인승기탕은 大承氣湯 만큼 준열한 처방도 아니고, 심지어 龍薈丸은 공윤이 명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다.²¹⁾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날 장령 김담이 아뢴 말에서 더욱 자세히 나타난다. 그는 경종에게 쓰인 용회환, 구선남극단, 滾淡丸 등은 극히 준열한 처방인데, 이 처방들은 이공윤의 처방이 아니라는 하였다. 그리고 이공윤이 쓰고자 했던 처방은 도인승기탕과 柴平湯 두 가지뿐이라고 하였다.²²⁾ 그동안 왕에게 도인승기탕과 구선남극단, 당귀용회환과 같은 공격적인 처방을 사용한 인물로 평가받았던 이공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결국 유배를 명했던 영조마저도 기준에 알려진 설에 의심을 품게 된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했다. 그동안 공격

적인 처방은 모두 이공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여겨졌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공격적인 처방으로 왕의 건강을 해친 다른 인물이 존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이공윤에 의해서 사용된 처방이 도인승기탕 4첩과 계지마황탕 1첩뿐이며 용회환은 그의 처방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²³⁾ 그 외에도 경종은 남극단이나 감수탕과 같은 독성이 강한 처방을 복용기도 하였으며 시평탕도 60첩 가까이 복용하였다. 특히 시평탕은 독성이 강한 처방은 아니나 위기를 손상시키는 처방이므로 장기복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²⁴⁾ 이처럼 경종은 용회환 외에도 독성이 강한 혹은 준열한 처방들을 여럿 복용하였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이들 모두가 이공윤의 처방이라 단정 지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공윤을 변호하는 측에서는 도리어 이공윤의 거친 성품과 좋지 못했던 언행, 평소 준열한 처방을 자주 쓰는 그의 의학적 경향성이 마치 모든 독한 처방을 그가 주장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하였다.²⁵⁾

결국 영조도 이공윤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영조는 이공윤이 성품이 좋지 않고 자기주장을 내세워 준열한 처방을 사용하였으나, 그렇다고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인물은 아니라고 말하며 더 이상 그에게 더 큰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다.²⁶⁾ 이후 시간이 더 흐르자 이공윤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더욱 늘어난다. 처음 유배 갈 때에만 해도 여러 준열한 처방을 사용하여 선왕의 건강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었던 그였지만 그의 처방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등장하였고,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조금은 달라졌다. 특히 좌의정 민진원은 자신이 직접 약원에 들어가 일기를 살펴 보았다고 하면서 '도인승기탕은 공윤의 처방인데 그렇게 준열하지 않으며, 계지탕의 경우 도리어 온열한 약이라 준열

20) '先王患候, 蓋非一時之症, 唯當以和平之劑, 漸次調補, 不可以攻伐之藥, 妄希捷效, 彼公胤者, 不思審慎之道, 輕投峻烈之劑, 如承氣湯·龍薈丸等藥, 雖載於古方, 藥性甚峻, 凡諸疾病, 不敢輕試, 而公胤, 乃敢試之於至尊之病, 以致胃氣先壞, 眞元暗鑿, 終貽臣民無窮之慟(痛)'.(『승정원일기』 영조원년 1월 27일, 『승정원일기』 영조원년 2월 8일, 『승정원일기』 영조원년 2월 11일 등)

21) '鎮遠曰, 此則臺啓未免爽實矣, 臣問之內局, 則李公胤之藥, 前後所進者, 只是桃仁承氣湯數帖, 而桃仁承氣湯, 其峻烈, 不至如大承氣湯, 龍薈丸, 元非公胤所命之藥云矣. 上曰, 龍薈丸事, 一時爽實, 此非公胤之罪矣'.(『승정원일기』 영조원년 3월 12일)

22) '李公胤之啓藥名爽誤事, 亦有所難安者... 今聞物議, 則壬寅以後所進龍薈丸·九仙南極丹·滾淡丸等, 無非極峻太烈之劑, 而此則非公胤之所命也, 公胤所命, 只是桃仁承氣湯·柴平湯二藥云, 前後所進, 無非峻劑, 剋伐胃氣, 終至於大故, 則是宜竝論前後首醫, 而只舉公胤, 未免疏忽之歸'.(『승정원일기』 영조원년 3월 13일)

23) '上曰, 以李公胤事, 臺諫頃日避嫌矣. 龍薈丸, 果是公胤所命耶? 鎮遠曰, 臣在藥院時, 問之諸醫, 則公胤所命之藥, 桃仁承氣湯, 初進二帖, 其後又進二帖, 大漸時, 桂枝麻黃湯一帖, 即公胤之藥, 而龍薈丸等藥, 元非公胤所命云矣'.(『승정원일기』 영조원년 3월 18일)

24) '臣在星州時, 聞見朝報, 則南極丹·甘遂湯等藥, 有進御之事. 臣雖未解醫術, 曾聞此等藥, 是極峻烈之劑, 不可輕用, 而何以試用於至尊耶? 心常憂慮矣. 近來伏聞, 柴平湯前後所進, 至於六十帖, 柴平湯, 雖非峻烈之劑, 大抵蕩平脾胃之藥, 非調補之藥, 外議皆以爲, 此等劑, 先傷胃氣云'.(『승정원일기』 영조원년 3월 18일)

25) '而公胤醫術, 平生善用峻劑, 且其爲人麤率, 言語狂悖. 小臣得罪藥院時, 亦嘗熟見之矣. 每命一藥, 輒曰, 進御此藥, 則即當平復稱慶云. 其妄率如此, 故前後所進之藥, 人皆謂公胤所命, 群情齊憤, 以致如此, 而實狀則不然矣. 渠雖狂妄, 不過術業不精, 人事不敏之致, 豈有逆心而然耶?'.(『승정원일기』 영조원년 3월 18일)

26) '天讀公胤啓, 上曰, 公胤, 果有不軌之心, 則予豈曲貸, 而只是狂妄之致也. 況其時提調, 雖甚無據, 若知其害於聖躬, 則豈可用其藥耶? 因公胤而有此延及, 似非清朝之美事, 勿煩. 倚天曰, 妄用峻劑, 以致胃氣日損, 眞元漸鑿, 終貽臣民無窮之痛, 論其罪惡, 豈有一毫容恕之理乎? 上曰, 欲立己見, 妄用峻劑, 此其罪也. 其心則豈有他意? 以此論人, 不亦過乎?'.(『승정원일기』 영조원년 4월 16일)

한 처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유배지를 조금 덜 먼 곳으로 바꾸자고 말한다.²⁷⁾

그동안 '도인승기탕과 당귀용회환과 같이 준열한 처방을 써서 왕의 건강을 해친 인물'로 평가받던 이공운은 영조 원년 3월 민진원 등의 의견으로 '도인승기탕과 계지마황탕 같은 그리 준열하지 않은 처방을 사용하였기에 처벌 상에서 감안해야 할 인물'이 되었다. 결국 같은 해 7월 즈음이 되면 영조 역시 더 이상 그가 어떤 처방을 썼는가에 대해 언급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경종승하 전날 일만을 말한다. 즉, 이공운은 '계지탕을 쓴 다음 코피가 나는 것으로 처방의 효과를 증험하려 한 망령된 인물'이자 '여러 해 아팠던 왕에게 당연히 많이 사용해야 할 인삼을 못 쓰게 한 인물', 그리고 '위독한 상황에서 부자를 사용치 못하게 한 인물'이라고만 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사람됨에 문제이지 반역의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유배지를 섬에서 이전에 결정한 극변지역으로 바꾼다.²⁸⁾ 7월 25일 이공운의 유배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나온다. 원래 결정되었던 극변지역이 함경도 경원이었는데, 지금 그가 유배된 진도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른 곳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²⁹⁾ 결국 다음날 그의 유배지는 전라도 홍양현으로 결정된다.

이공운의 의약동참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경종실록을 비롯한 영조 즉위초 기사들은 한결같이 그가 준열한 처방을 자주 쓴 인물로 평가한다. 특히 도인승기탕, 당귀용회환, 구선남극단, 감수산과 같이 독성이 강한 처방을 주장한 인물이라 하여 준열하다는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영조원년 3월 이후에 등장한 기사들은

그가 준열한 처방을 쓰는 경향성은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처방 중 실제 그가 주장한 것은 도인승기탕 뿐이며 이 후에도 시평탕이나 계지마황탕을 주장하였으나 이들은 그렇게 준열한 처방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경종 대 승정원일기에도 몇몇 기록들이 남아있다. 우선 구선남극단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종에게 처음 구선남극단을 처방하겠다고 한 날은 경종3년 9월 10일이다.³⁰⁾ 그리고 당시 이 처방이 누구의 주장으로 사용케 되었는지는 기록된 바 없다. 외의인 이공운이 주장한 도인승기탕의 경우 그가 주장한 처방임이 명시되어 있으며,³¹⁾ 도인승기탕 외에도 이공운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처방의 경우 이공운의 의견을 따른 처방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³²⁾ 그런데 구선남극단에서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더구나 9월 24일 기사에서 이공운은 남극단이 열을 치료하는 처방이기는 하나 지금 왕의 증후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구선남극단 사용을 반대한다.³³⁾

당귀용회환의 경우도 이공운의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처방은 경종2년 12월 20일에 처음 등장한다.³⁴⁾ 그런데 며칠 뒤 이 처방에 대한 좌승지 임순원의 상소문이 올라온다. 그는 처방이 현재 왕의 건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처방을 결정한 수의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그러면서 이 처방을 주장한 사람이 의관 중 한 사람이라 하였는데,³⁶⁾ 당시 입진 의관 명단에 이공운은 없었다.³⁷⁾ 이후 29일에도 당귀용회환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이날 당귀용회환의 사용여부에 대해 논의한 의관은 수의 이시성을 비롯한 여러 내의들이었으며, 그밖에 의약동참으로 임서봉, 이공운 등이 참석하였다. 논의결과 유의 임서봉과 내의 허점을 제외한 16~17인이 모두 당귀용회환의 사용을 찬성하였다.³⁸⁾

27) '鎮遠曰, 臣於李公胤事, 竊有所懷, 故敢達矣. 公胤當初被罪時, 臺啓措語, 以大行朝違豫時, 多用峻劑, 竟致罔極之痛云, 觀其罪目, 極爲驚痛矣. 臣入藥院後, 考見日記, 且聞醫官輩之言, 則公胤, 元無擔當用藥之事, 公胤所命之藥, 前後進御者, 只是桃仁承氣湯數貼, 而此非極峻之劑, 至於大漸時, 桂枝湯, 係是溫熱之劑, 則多用峻劑之說, 未免歸虛, 只是大漸時, 有召命, 而未即待命, 此爲無狀矣. 然, 今已周年島配, 則足懲其罪, 似有參酌之道矣.' (『승정원일기』 영조원년 7월 22일)

28) '上曰, 公胤藥事, 向已言之矣...用桂枝湯後以衄血, 可驗其效, 爲言, 此豈非悖妄之甚者乎? 大行朝彌年違豫, 則雖閭巷人之病, 固宜多用參料, 而公胤以爲不可, 故終不得多用, 大行朝患候, 雖曰頗有火熱, 而至於大漸時, 將用附子, 則公胤, 又以爲不可, 欲塞局醫之見, 因子嚴責, 附子則雖用之, 而此尤極痛惡矣. ...而予素知其爲人之狂率, 非出於不軌之心, 故其時臺官爭執, 而原其情酌處矣. ...今者大臣所達, 意亦有在, 依當初判下, 極邊定配, 而配所則以初下單子舉行, 可也.' (『승정원일기』 영조원년 7월 22일)

29) 『승정원일기』 영조원년 7월 25일

30) '臚仙南極丹, 加鬱金五錢, 兼進各一劑, 以爲治火降氣之地, 宜當云' (『승정원일기』 경종3년 9월 10일)

31) '台佐曰, 桃仁承氣湯, 李公胤之言' (『승정원일기』 경종3년 6월 19일)

32) '十六味流氣飲, 初出於李公胤, 入門方二陳湯, 公胤又最先考出搜示' (『승정원일기』 경종4년 8월 2일)

33) '肇曰, 臚仙丹, 劑進已久, 當於數日內已盡矣. 繼進與否, 今當議定, 而退出後議之乎? 上曰, 榻前議之, 可也. 公胤曰, 南極丹, 雖是治熱之劑, 不當於聖候, 姑爲停止, 一望後徐議, 則好矣. 瑞鳳曰, 此藥, 全是涼劑, 似有損於胃氣, 今姑停止, 宜矣.' (『승정원일기』 경종3년 9월 24일)

34) '當歸龍薈丸一劑, 亦爲劑入' (『승정원일기』 경종2년 12월 20일)

35) 『승정원일기』 경종2년 12월 24일

36) '醫官中一人' (『승정원일기』 경종2년 12월 24일)

37) '醫官李時聖·方震夔·吳重高·李時弼·權聖揆·玄梯綱·許信·金漢齡·崔德齡' (『승정원일기』 경종2년 12월 20일)

38) '卽今當歸龍薈丸議定之際, 十六七人, 皆曰可用, 而儒醫任瑞鳳及御醫許站若而人, 皆曰不可用, 一可一否, 莫適所從矣.' (『승정원일기』 경종2년 12월 29일)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공윤은 당귀용회환 사용에 찬성한 16~17인의 의인 중 한사람이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이공윤에 대한 기록들은 일관되게 그가 준열하고 공격적인 처방을 잘 쓰는 의인이라 말한다. 또한 그의 성품에 대해 언급된 기록들도 모두 일관된 평을 하고 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면 그가 주장한 처방이 무엇이나는 점이다. 도인승기탕은 확실히 이공윤의 처방이었다. 그리고 경종 승하 전날 계지마황탕도 그의 처방임이 분명했다. 나머지 처방들에 대해서는 말이 조금씩 다른데, 그 중 공격적인 처방으로 일컬어진 구선남극단, 당귀용회환의 경우 이공윤의 처방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윤은 특유의 거친 태도와 준열한 처방을 잘 쓰는 의학적 성향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공격적인 처방으로 왕의 몸을 해친 인물로 알려졌었다.

2. 이공윤의 의학적 성향

앞서 살펴본 기록들이 이공윤의 의약동참기록 중 결과나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기록들은 실제 그가 의약동참한 기록 중 그의 의학적 소견이 드러난 기록들이다. 이를 통해 그가 의학적 성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병에 대한 공격적 접근

이공윤이 준열한 치료법을 쓴다는 점은 당시 이공윤을 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다. 승정원 일기 기사에 따르면 이공윤은 峻熱한 처방을 사용하여 임금의 위기를 손상시킨 인물로 설명된다.³⁹⁾ 여기서 준열하다는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준열하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더 온화한 방법으로 치료하였음을 반증한다.

경종년간 승정원일기 기사 중에 火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 내용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火는 일시적인 화와 수년간 쌓인 火로 나뉘며 각각을 치료함에 있어서 일시적

인 火는 凉한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오랫동안 쌓인 火는 溫법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덧붙여 열이 위로 오르는 증상에 대한 의학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眞陽에 손상을 입어 下元이 허하고 냉해지면 陽이 기델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부로 열이 솟는다고 하였다.⁴⁰⁾ 즉 당시 의관들은 오랫동안 열이 솟아오르는 증상은 양기의 부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온법을 써야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도 영조시대의 기사 중에 일시적으로 생긴 증상이 아니라면 화평한 약으로 점차 調補시켜 치료해야하지, 공격적인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⁴¹⁾ 이러한 병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공윤의 접근 방식과 달랐다.

이공윤은 오랫동안 열이 위로 솟아오르는 경종의 병에 대해서, 당시 많은 의관들은 그 원인을 濕痰이나 痰火로 보고, 또 당시 진료에 참여했던 유의 임서봉과 박태초가 補劑 사용을 권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병의 원인을 血道가 막힌 것으로 보며 瀉下劑의 일종인 桃仁承氣湯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²⁾ 온법과 보법을 이야기한 여타 의관들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치료법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의 또 다른 처방인 계지마황탕은 경종의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 그가 주장한 약이다. 당시 경종은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설사를 시작했으며, 의관들은 광항정기산, 황금탕 등을 처방하다가 8월 23일에 인삼차를 대령한다. 식사를 거른지 한 달쯤 된 상태라 기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까지 해서 진액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인삼의 止渴補中氣하는 효능이 있으니 현재 왕의 증상에 적합하다고 여겼다.⁴³⁾ 그런데 그 다음날 이공윤은 계지마황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⁴⁾ 계지마황탕은 『동의보감』에서도 風泄, 痰泄, 久泄에 등장하는데 모두 설사와 관련 있는 병증이다.⁴⁵⁾ 그가 왜 계지마황탕을 주장했는지 왕실기사에 등장하지는 않으나 이 처방이 땀을 흘리게 하여 설사를 멎게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⁴⁶⁾ 결국 현재 경종의 상태가 止渴補中氣를 해야 할 상황인가, 發汗으로 설사를 멎게 해야 할 상황인가로 의견이

39) ‘藥性甚峻, 凡諸疾病, 不敢輕試, 而公胤, 乃敢試之於至尊之病, 以致胃氣先壞, 眞元暗鑠.’(『승정원일기』 영조원년 1월 27일)

40) ‘蓋以治火之法, 若是一時微火, 則固涼以解之, 而至於積年宿火, 則必溫而散之, 一有當溫而涼之, 則眞陽見損, 下元虛冷, 陽無止泊, 上升爲熱.’(『승정원일기』 경종2년 12월 24일)

41) ‘蓋非一時之症, 唯當以和平之劑, 漸次調補, 不可以攻伐之藥.’(『승정원일기』 영조원년 1월 27일)

42) ‘台佐曰, 桃仁承氣湯, 李公胤之言, 以爲聖候, 醫官輩, 或曰濕痰, 或曰痰火, 而渠之所見, 則乃是血道壅滯之症, 若用桃仁承氣湯二貼, 則必有奇效云. 儒醫任瑞鳳·朴太初, 則以爲上候, 當用補劑云.’(『승정원일기』 경종3년 6월 19일)

43) ‘蓼茶進御, 則止渴補中氣, 故一兩重茶煎來矣, 進御伏望.’(『승정원일기』 경종 4년 8월 23일)

44) ‘已刻復入診…若進桂枝麻黃湯二貼, 泄瀉可立止. 遂煎入進服.’(『경종실록』 경종 4년 8월 24일)

45) 김동윤, 정지훈. 「경종독살설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15-31.

갈린 것이다.

이는 도인승기탕을 주장했을 때와 비슷한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기를 보충해서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의관들 사이에서 더욱 일반적인 견해라면 이공운은 '막힌 혈도를 뚫기 위해 어혈을 사하시키는 처방을 사용'하거나 '갑작스레 생긴 설사병을 치료하기 위해 발한시켜 설사부터 멎게 하는 처방을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원기를 둔 구어 스스로 병을 이겨나갈 힘을 제공하느냐 증세를 제거하기 위해 사하나 발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느냐에서 차이가 난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차이는 병에 대한 그들의 관점차를 보여 준다. 만성적인 질병을 다룸에 있어 다른 의관들은 환자의 원기에 초점을 맞춘다. 원기를 보충하면 환자가 스스로 병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공운은 증상의 제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약을 논하는 자리에서 원기에 대한 의견도, 보법에 대한 그의 견해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말을 할 때에도 대부분 '이 약을 쓰면 그 증상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한다. 즉 병을 치료함에 있어 증상의 제거가 중심이었으며, 원기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발한이나 사하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환자의 몸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공격적인 방법이라 여겨졌더라도 그는 환자의 증상이 제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처방을 결정하였다.

이 두 개의 처방만으로 이공운의 병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가 이 당시 발한법과 사하법을 사용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도 이진탕이나 십육미유기음과 같은 처방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⁴⁷⁾ 단순히 공격적인 방법인 발한법과 사하법만을 주장한 의관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기존의 의관들과 다른 생각을 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증상의 제거를 위한 과정에 환자의 원기에 대한 고려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환자 스스로 이겨나갈 힘'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려는 방법과 '증상 제거'를 위해 약의 힘을 사용하려는 방법, 환자의 몸이 가진 힘이나 환자의 몸에 드러난 증상이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고민에서 이공운과 다른 의관들은 생각을 달리 했던 것이다.

2) 의학입문에 대한 식견

‘李時聖診曰，左右脈候沈數，而即今玉色，帶紅氣，似上升矣。權聖徵診曰，左脈三部本沈，而數氣存焉，右邊關脈，沈中尤數，玉色則兩頰帶紅中，左頰尤紅矣。許沾診曰，脈候右邊數氣，不至大段，而左邊寸關脈，似數矣。方震夔診曰，右邊關脈帶數，而左寸脈尤數，玉色則略有紅暈之氣矣。玄梯綱診曰，左右三部脈，俱未免沈數，而未知有力氣玉色，方紅潤矣。李震成診曰，左右三部脈俱帶數氣，而未覺有力氣，玉色則略有紅暈之氣矣。權聖揆診曰，左右脈候，不如前日之沈，而數氣則一樣，玉色，此時似紅暈矣。許信診曰，左脈之數，不如右脈，而玉色則帶紅矣。崔周慶診曰，左右脈三部帶數，而度數少緩，玉色則帶紅矣。鄭爾柱診曰，左右三部脈俱數，中關脈活，而尺脈尤數，玉色則紅暈矣。李公胤進，則李台佐曰，此乃長陵參奉李公胤也。公胤診曰，臣在閭閻，未嘗診人之脈，故素不知脈，而大抵似濕脈矣。任瑞鳳進，則李台佐曰，此乃儒醫任瑞鳳也。瑞鳳診曰，脈候中尺脈弱矣，尺中陽氣所發，此乃真陽不足之致，而玉色則略有紅氣矣。’⁴⁸⁾

이 글은 경종 2년 12월 29일의 입진기사로 그 중 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이날 의관들은 왕의 맥을 짚고 안색에 바라본 뒤 한사람씩 그 결과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대다수 내의들의 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면 당시 임금의 맥이 좌우 沈數, 帶數하다는 평이 대다수이다. 반면 외의인 공운과 임서봉은 다른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 임서봉은 尺脈이 약하여 진양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공운은 좌우 촌관척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이 濕脈같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습맥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을 논의하는 입진자리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여기서 이공운이 말한 습맥의 '습'은 한의학에서 일컫는 '습'이라는 사기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의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동의보감』에도 습맥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濕門』에서 맥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습이라는 사기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맥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맥상을 포괄하고 있다. 습에 상한 맥을 細濡하다고 표현한 반면 濕熱의 맥은 緩大하다고 하였다. 中濕의 경우 澁, 細, 濡, 緩으로 표현되

46) 『東醫寶鑑·大便門』 「風泄」, 「飧泄」, 「久泄」

47) 『승정원일기』 경종4년 8월 2일

48) 『승정원일기』 경종2년 12월 29일

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표현들로 습과 관련된 맥상을 설명한다.⁴⁹⁾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맥상을 오직 ‘습’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여러 의서에서도 ‘습맥’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동의보감의 내용처럼 습이라는 사기가 침입한 상태의 맥이 오직 하나의 양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의학입문에서 ‘습맥’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의학입문에서는 습맥의 기본을 沈으로 보고 邪氣의 성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특히 화열이 있을 때는 맥이 沈數하다고 하였다.⁵⁰⁾ 당시 대부분의 의관들이 경종의 맥을 침삭하다고 보았으며 경종이 화열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공윤이 말한 습맥은 의학입문의 화열이 있는 습맥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이공윤과 의학입문 사이의 연관성은 그가 언급한 처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종 4년 기사에 따르면, 대비전에 올린 약 중 2개의 처방이 이공윤과 관련된 처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십육미유기음이고 다른 하나는 입문방이진탕이다.⁵¹⁾ 여기서 입문방이진탕은 동의보감 이진탕과 배오는 같으나 구성비에서 차이를 보인다.

‘二陳湯：通治痰飲諸疾。或嘔吐惡心，或頭眩心悸，或發寒熱，或流注作痛。半夏製二錢，橘皮，赤茯苓各一錢，甘草灸五分。右剉，作一貼，薑三片，水煎服。⁵²⁾’

‘二陳湯：陳皮二錢，和脾消痰利氣。半夏一錢，燥濕豁痰，溫中。血虛燥證，須用姜汁制曲。茯苓八分，行竅滲濕和中。甘草四分，健脾瀉火和中。生姜三片，水煎溫服。⁵³⁾’

동의보감에서는 반하가 2돈, 귤피와 적복령이 1돈, 감초가 5푼, 생강 3푼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학입문에서는 진피가 2돈, 반하는 1돈, 복령 8푼, 감초 4푼, 생강 3푼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오 구성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용량상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미묘한 약재구성의 차이를 구별하여 입문방이진탕의 사용을 권한 것으로 보아 이공윤이 의학입문에 대한 식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및 고찰

이공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비교적 공격적인 처방을 쓰는 의사였다. 다만 당시 원기에 중점을 둔 의관들의 의학적 견해에 비해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이며, 당귀 용회환이나 구선남극단과 같은 처방을 주장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의 처방은 증상의 제거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당시 원기를 회복시켜 병을 이기게 하려는 의관들, 혹은 왕세제의 생각과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학술적 기반에는 의학입문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그가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은 조선 왕실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애초에 의약동참은 왕실 내에서 御藥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이는 당대 최고수준의 의료인들이 아니고는 참여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⁵⁴⁾

한편, 경종 승하 후 영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今以李公胤之事觀之，…古語以委之庸醫，比之不孝，而沉內局議藥，何等至重，以不表著方外之醫，參於其間，眩亂藥理乎？然方外之類，若有術業精明者，而混入於防塞之中，則事近因饑而廢食，亦慮玉石之俱沈。從今以往，藥不如許任，鍼不如白光玠，則一遵先朝受教，勿使方外之儒醫，隨參議藥之列。⁵⁵⁾’

이공윤은 방외의인이었다. 의약동참하여 내의들과 함께 왕실진료에 참여하였으나 왕실 소속의 정식 의사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학적 견해는 당시 내의원 의사들과 다를 수 있었다. 이는 다른 방외의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학술적 교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자적인 진료범위에서 스스로 혹은 사사를 통해 터득한 의학적지식을 가진 존재가 바로 방외의인이었다.

내의들에 비해 자유롭고 다양한 의학적 견해를 가질 수

49) ‘傷濕之脈，細濡。濕熱之脈，緩大。或澁或細或濡或緩，是皆中濕可得而斷。脈浮而緩濕在表也。脈沈而緩濕在裏也。脈弦而緩，或緩而浮，皆風濕相搏也。身痛，脈沈爲中濕，脈浮爲風濕。’(『東醫寶鑑』「濕門」脈法)

50) ‘濕脈自沉，沉遲寒侵，沉數火熱，沉虛滑脫。’(醫學入門)「雜病脈法」)

51) ‘今春大妃殿未寧時，十六味流氣飲，開氣消痰湯，入門方二陳湯，皆有顯效，而十六味流氣飲，初出於李公胤，入門方二陳湯，公胤又最先考出搜示，臣等又爲考示於醫官白興銓，末稍平復，專在此藥。其時白興銓·崔龜慶·金壽燾·權聖揆·鄭爾柱等，皆力主此藥，而若其首發，則乃公胤也。’(『승정원일기』 경종4년 8월 2일)

52) 『東醫寶鑑·痰飲門』「痰飲通治藥」

53) 『醫學入門·外集·卷七』「痰類」

54) 이규근. 「조선후기 의약동참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2001:19:119-145.

55) 『승정원일기』 영조즉위년 9월 29일

있는 그들이기에 왕실에서는 때에 따라 그들의 지식을 필요로 하였다. 그들을 입진시키거나 의약에 동참케 함으로써 왕실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⁵⁶⁾ 그들의 지식은 내국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거나 혹 내국의 처방을 재차 검증케 해 주었다. 이공운 역시 준열한 치료법으로 왕의 건강을 해친 인물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그가 대비전에 추천한 십육미유기음이나 입문방이진탕의 경우 현묘한 효과가 있었다.

결국 위 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공운을 비롯한 방외의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높은 방외의인의 의약참여를 막지 않는다. 조선왕실은 왕의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본 내의들의 경험 및 높은 의학적 소양만큼이나 궁 밖에서 의의들이 쌓아온 남다른 의학 지식과 경험을 인정하였다. 이공운 역시 결말은 좋지 않았으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왕실의학에 내비쳐 다양한 의학적 견해를 만드는데 일조한 인물이었다.

유배지로 보내진 이후 이공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신치운의 공초사건 이후로 영조는 그에게 반역의 마음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역률을 시행케 명한다.⁵⁷⁾ 정조 승하 후 순조 즉위 초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역행을 저지른 부정적 인물로 등장한다.⁵⁸⁾ 또한 이철보의 지암유고에도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與諸臺論內局諸醫迭試攻補之劑。遂至罔極之境。議藥官李公胤當大漸之際。偃然退臥。請并拿鞫。⁵⁹⁾”이라 하여 왕실진료에 참여한 의사로서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다. 궁 밖에서 자신의 의술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던 그의 모습과 태도가 궁 안에서는 도리어 그에게 화를 불러 일으켜, 결국 후대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이미지를 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景宗實錄』.
2. 『景宗修正實錄』.
3. 『東醫寶鑑』.
4. 『承政院日記』.
5. 『英祖實錄』.
6. 『醫學入門』.
7. 『止庵遺稿』.
8. 김동욱, 김남일, 차웅석. 「승정원일기 의안을 통해 살펴본 경종의 기질에 대한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3; 26(1):41-53.
9. 김동욱, 정지훈. 「경종독살설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 27(1):15-31.
10. 이규근. 「조선후기 의약동참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2001; 19:119-145.
11. 이덕일. 『조선 왕 독살사건』. 서울:다산초당. 2005:199-243.
12. 홍세영. 「왕실의 의약」. 한국의사학회지. 2010;23(1): 105-113.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공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016.10.30).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10-0020938).

56) 홍세영. 「왕실의 의약」. 한국의사학회지. 2010;23(1):105-113.
57) 『승정원일기』 영조31년 5월 21일
58) 『승정원일기』 순조즉위년 7월 13일
59) 『止庵遺稿·冊六』 「伯氏大司諫府君行狀」